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제608호

지면안내 03 사회
깊이 있는 학문에 오묘된 소단위 전공

04 기획
ISA, 만능계좌의 탈을 쓴 함정

05 사람
환경을 위한 연대,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리다

08 광고
제58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인재장학금 개편된다

장학금 개편 세부사항		
	한성인재장학금(변경 전)	한성성공장학금(변경 후)
평가방식	• 한성인재포인트 (교과 성적 90% + 비교과 포인트 10%)	• 교과 성적 100%
장학금액	• 단과대학 전공별 최우수자(수업료 70%) • 전공별 우수자(수업료 50%, 30%)	• 단과대학별 최우수자(수업료 100%) • 단과대학별 우수자, 전공별 최우수자(수업료 70%) • 전공별 우수자(수업료 50%, 30%)
인원배정	• (트랙) 15명당 장학생 1명 • (학과) 10명당 장학생 1명	• (트랙·학과) 10명당 장학생 1명
소수 트랙·학과 장학생 선발	• 트랙인원 15명 미만, 학과인원 10명 미만 적용 (1, 2트랙 모두 미만일 경우) • 학년별 장학생 평균점수 이상, 장학금 30% 지급	• 1트랙, 학과 10명 미만 적용 • 학년별 장학생 평균점수 이상, 장학금 30% 지급
동점자 처리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전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연장자	• 소득분위 →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 전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자

한성인재장학금이 '한성성공장학금'으로 변경된다. 지난 10일 본교 홈페이지에 개편안이 게재됐다. 개편은 학생 및 학부모의 지속적 교과 성적과 비교과 포인트 분리를 반영하고 장학제도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성성공장학금은 2025학년도 1학기 성적을 반영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총장, 학생처장 등으로 구성된 장학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1학기 중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장학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중집(학생장학팀) 팀장은 "개편 사항 등을 적용해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교과 성적 90%와 비교과 포인트 10%를 합산하던 기존 평가방식은 교과 성적 100% 반영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11월 개최된 제18회 한성인프레젠테이션 대회(이하 대회)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교내장학금 개선 관련 재학생 설문조

사에서 제기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포인트 분리 요청을 수렴한 조치다.

수혜 금액은 확대된다. 기존 단과대학·전공별 최우수자에게 수업료가 70% 지원됐으나, 단과대학별 최우수자에게 수업료 전액이 지급된다. 단과대학별 최우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학년·주야별로 선발된다. 단과대학별 우수자, 전공별 최우수자는 종전과 같이 수업료 70%가 배정될 예정이다.

장학금 인원 배정과 소수 트랙·학과의 장학생 선정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트랙 15명당 1명, 학과 10명당 1명의 장학생이 배정됐으나, 개편 후 학과와 트랙 모두 10명당 장학생 1명으로 통일된다. 트랙은 1트랙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소수 트랙·학과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트랙·학과의 학생이 단과대학 내 학년별로 선발된 장학생들의 평균 점수 이상을 받으면 인원수 제한 없이 30%의 장학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조 팀장은 "한성성공장학금 개편 후 트랙·학과의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분위가 우선 고려된다. 기존에는 동점자 발생 시 취득학점이 많은 자가 최우선 순위가 됐으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정책을 논해 변동됐다. 조 팀장은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은 보편적으로 운용되는 장학제도의 선발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소득분위 우선 선발 기준은 개편에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발된 장학생의 평균 점수는 공개될 방침이다. 대회를 통해 제기된 단위별 장학생 한성인재포인트 점수 공개 의견에 따라 1학기 한성인재장학생의 학년·주야별 평균 점수가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한성성공장학금의 단과대학 학년별 장학생의 평균 점수도 안내된다.

한편, 장학금 평가방식에 비교과 포인트가 제외되면서 2025학년도 2학기에 비교과 포인트만을 평가기준으로 한 장학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 팀장은 "비교과장학금 관련 사항은 학생성공센터에서 1학기 중으로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헤이영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부터 '한성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이하 전자출결 시스템)'이 '헤이영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헤이영 전자출결 시스템은 '헤이영 캠퍼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지난 17일부터 전자출결 시스템은 접속 불가하다.

헤이영 전자출결 시스템은 '헤이영 캠퍼스 모바일 앱' 구축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한성대학교-신한은행 업무협약(이하 협약)의 일환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전자출결 시스템은 학교가 업체 측에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헤이영 캠퍼스는 본교와 신한은행 간 협약으로 인해 무상으로 전자출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헤이영 전자출결 시스템으로 전자출결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석체크' 이외에도 '중도체크'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 출석체크는 기존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한 방식과 동일하다. 수업 시작 후 5분까지 출석 처리된다. 중도체크는 교수자가 원할 경우 수업 도중에 학생의 출석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이다. 교수자가 수업 도중 중도체크를 누르면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헤이영 캠퍼스 앱에 접속해 다시 출석체크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본부 측은 전자출결 방식이 변경된 것을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최대한 많은 학생이 개강 전 헤이영 캠퍼스 앱을 설치해 전자출결이 무탈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미래를 향한 발돋움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하 학위수여식)'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지난 21일 개최됐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1,098명, 석사 260명, 박사 27명, 콘텐츠디자인칼리지 83명 등 총 1,468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에서는 ▲우촌상 1명 ▲이사장상 1명 ▲성적최우수상 2명 ▲성적우수상 52명 ▲공로상 112명 ▲한성인재인증서상 1명 ▲총동문회장상 1명 ▲기업은행장상 2명 ▲우리은행장상 1명 등 총 173명에게 상이 수여됐다. 대학원에서는 ▲최우수논문상 3명 ▲우수논문상 16명 ▲성적우수상 25명 ▲특별공로상 2명 ▲공로상 25명 ▲대학원 총동문회장상 2명 등 총 73명이 수상했다. 콘텐츠디자인칼리지에서는 ▲성적우수상 1명이 수상했다. 우촌상을 받은 서양경(미술 4) 졸업생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교수의 배려 덕분에 학업에 잘 따라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당신의 마음, 글로 전해보세요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자유 주제

분 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1,1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5.5매)

혜 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해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재

문 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새로운 시작의 두근거림

‘2025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이 지난 17·19·20일에 낙산관 대강당 및 교내 전역에서 실시됐다. 이번 오티는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신입생의 적응력



▲오티에서 안내를 듣는 학생들

함양을 위해 개최됐다.

17일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과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신입생, 19일에 디자인대학과 창의융합대학 신입생, 20일에 IT공과대학과 미래플러스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티가 진행됐다. 오티는 일괄 13시에 시작해 ▲등록 ▲이동 ▲개식사 ▲축하공연 ▲대학생활 안내 ▲트랙 탐방 및 기타 부스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한국무용전공 학생들과 학내 동아리 공연으로 구성됐다. 한국무용전공은 3일 모두 진행됐으며, 17일에는 낙산극회, 19일에는 들불, 20일에는 NOD가 축하공연에 참여했다. 대학생활 안내에서는 학

내 프로그램, 수강신청, 학사제도 등이 안내됐다. 이후 ▲학술정보관 ▲상상파크 ▲상상관 등 학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당 장소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낙산관 체육관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신입생이 관심 있는 트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해당 트랙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오티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20pt가 지급됐으며, 상상부기 인형 및 리유저블 백으로 구성된 신입생 웰컴키트를 제공받았다. 온라인 오티는 따로 개최되지 않았다.

오티에 참여한 김수민(사회과학 1) 학생은 “수강신청 방법과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영(사회과학 1) 학생은 “학교를 돌아보니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알차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티를 통해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티에서 신입생 트랙설명회 부스를 운영한 김지민(뷰티 2) 학생은 “트랙설명회 부스에서 새내기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에게 맞는 트랙·학과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학년도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오는 25일 14시 미래관 DL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한성학원 문동후 이사장 연임



▲본지와 인터뷰하는 문동후 이사장

지난 12월 18일 제25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하 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76) 이사가 재선임됐다. 문 이사장의 재선임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4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정됐다. 그는 지난 1월 4일 취임해 한성학원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30년 1월 3일까지다. 문 이사장은 2022년 4월부터 한성학원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그는 제24대 한성학원 이사장으로 업무를 이어 나가는 동안 한성학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문 이사장은 “처음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한성학원의 불안정한 재정 문제가 해결 과제였으나 현재 한성학원 발전기금을 모집하는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토대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5학년도 본교 내국인 학생 등록금 동결에 대해 대학본부의 관계

자가 학생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문 이사장은 “이번 등록금 동결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에 맞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피력했다. 그는 “한성여자중학교와 한성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의 학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격변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이사장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창의적 교육과 협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성학원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기계가 지닐 수 없는 창의성을 학생에게 함양해주는 것이 대학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교양이수체계 개편... 교과목 선택권 확대된다

2025학년도부터 일부 교양이수체계가 개편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영어 우수자’는 ‘영어커뮤니케이션’을 수강하지 않을 수 있다. 2025학년도 상상력인재학부 신입생의 경우 ‘한성 이마기난스’를 ‘창의융합 전공탐색’으로 대체 이수해야 한다. 또한 상상력인재학부 내 ‘자기설계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창의융합 세미나’ 교과목도 개설될 예정이다.

영어 우수자는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 수강이 면제된다. 영어 우수자의 대상에는 ▲영어권 국적자 ▲영어권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교육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자 ▲영어커뮤니케이션 반배치 고사 만점자 ▲공인 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등이 있다. 영어 우수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에 있는 ‘영어 커뮤니케이션 이수 면제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 후

상상력교양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상력교양대학 교양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이다.

단 ‘영어커뮤니케이션’ 과목 면제자도 25학번 기준 교양교육과정의 최소 이수학점인 31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영어커뮤니케이션 독해·작문’과 ‘영어커뮤니케이션 청취·회화’ 면제 시 4학점을 별도의 교양 과목으로 대체해 이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양영어과정은 현재 영어 우수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우수자의 ‘영어커뮤니케이션’ 수강 면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일선(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영어커뮤니케이션’ 수강 면제는 영어권 국가 출신 및 영어 우수자에게 학습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

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상상력인재학부 신입생의 경우 기존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한성 이마기난스’를 ‘창의융합 전공탐색’으로 대체해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의융합 전공탐색’의 학점은 1학점에서 3학점으로 확대됐다. 또한 평가 방식도 P/N(Pass/Non-Pass)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됐다. ‘창의융합 전공탐색’은 상상력인재학부 측에서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수강신청을 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상상력인재학부 신입생이 ‘한성 이마기난스’를 이수할 시 해당 교과목은 교양필수 가 아닌 일반교양으로 인정된다.

또한 상상력인재학부 내 신설되는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의융합 세미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 스스로 전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상력

인재학부 전공이수 유형은 트랙전학과 자기설계전공형으로 구분된다. 트랙전학형이 기존 방식대로 1학년 2학기 말에 2개의 트랙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자기설계전공형은 1개의 트랙만 선택한 채로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한다. 자기설계전공을 1트랙으로 선택한 학생은 2트랙만 선택하는 방식이다. 자기설계전공의 모집은 2025학년도 2학기 트랙 신청 기간 이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창의융합 세미나’는 자기설계전공을 선택한 학생을 위한 교과목으로, 2025학년도 2학기 트랙 신청 기간 전 개설 예정이다. 상상력인재학부 측에서 학생의 적성과 희망 진로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관심 분야별 주제를 나눠 30명 내외의 반으로 운영된다. 김 교수는 “창의융합 세미나는 자기설계전공에 관

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과목”이라며 “자기설계전공 신설이 본교의 목표인 학생성공교육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상력인재학부 신입생의 교양이수체계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상상력인재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아(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상상력인재학부 학생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성 이마기난스’와 ‘창의융합 전공탐색’ 모두 창의융합역량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이라며 “1주일 1시간으로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평가방식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학생과 교수자 양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수체계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제보하기

작은 소식까지 귀 기울이겠습니다

tel : 02)760-4186

e-mail : hansungnews@gmail.com

address :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kakao Talk : @hansungnews

instagram : @hansungnews

깊이 잃은 학문에

오염된 소단위 전공

소단위 전공은 기존 학위 과정보다 적은 이수 학점으로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도입 당시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실무적 기술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학위 제도로 주목받았다. 이후 소단위 전공이 전국 대학에 빠르게 확산됐으나, 운영 과정 전반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위 취득을 위한 '스펙 쌓기 코스'에 머문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소단위 전공은 전공을 세분화해 집중적인 학습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학습자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전공은 통상 9~15학점으로 구성되며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설계된다. 기존 학위 제도가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의 기술 및 지식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컴퓨터공학이나 경영학 등의 전공을 융합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디지털 마케팅 등의 세부 전공을 소단위 전공을 구성할 수 있다. 소단위 전공은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신산업 기술에 중점을 두거나 전공을 융복합하는 특징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소단위 전공이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맞춘 실용적인 교육방안이라고 평한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을 즉각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연임(목원대학교 국제예술한국어학부) 교수는 "소단위 전공이 학생에게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며 성인 학습자도 수강할 수 있어 학습에 자율성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소단위 전공이 도입된 이후, 2023년 교육부가 관련 제도를 공식화하며 전국 대학에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본지가 소단위 전공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84.4%(65개)의 대학이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형태로 소단위 전공을 시행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이 소단위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외 대학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대학이 소단위 전공을 운영하는 반면, 소단위 전공을 수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강의 관련 정보의 부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의 내용, 수업 방식, 세부 계획 등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들이 강의의 충분

히 이해하고 강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주원 학생은 "홈페이지에는 소단위 전공에 대한 형식적인 안내만 있을 뿐, 수업 진행 방식이나 후기 등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수강신청을 진행해도 강의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한다. 학습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본 제도의 취지와 달리 최소 수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조차 되기 어려운 것이다. 박 학생은 "극예술창작실습을 진행하는 소단위 전공 강의 수강 과정에서 수강 가능 최소 인원을 한 명 넘겨 간신히 강의가 개설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조혜경(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소단위 전공 운영의 문제점 중 적지 않은 대학이 직면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참여가 저조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수강한 소단위 전공이 학습 내용의 이점 없이 단순 학위 획득 과정에 머무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소단위 전공이 기존 전공이나 교양 과목에서 분화된 심화된 학습을 본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못하며 부여된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찬서 학생은 "마이크로 디그리를 통해 행정학과 강의를 수강했지만, 기존 행정학과 학생과 동일한 이론 중심의 강의였다"며 "실무 학습이 부족해 마이크로 디그리의 장점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정해진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안주하며 발전에 둔감하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단위 전공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학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총체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 및 산업의 요구와 그에 맞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공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대해 합의해야 하지만 속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는 비판이다. 조 교수는 "현재 소단위 전공에 대한 논의는 도입배경과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각 대학의 사례 등에 대한 것이 전부라서 운영에 대한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수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 지원 미흡이 지목된다. 소단위 전공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해당

전공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 행정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이나 교수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최정희(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 연구교수는 "대학 내 교육과정의 학사 구조는 조직 확보 등에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시급한 해결이 강조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지도 저조가 소단위 전공 강의 개설 난항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단위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전공 제도 도입만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습효과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소단위 전공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2021년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에서 진행한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85.5%의 학생들은 마이크로 디그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잘 몰라서'라 답했다.

이 같은 인식 부족은 학습자뿐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나타난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에서 2023년에 진행한 「마이크로전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수, 학생 인식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교의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106명의 교수자 중 38.7%가 마이크로전공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소단위 전공 강의의 질 문제는 강의의 체계적인 질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강의의 질은 효과적인 교육과정 설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확보되지만, 현재 소단위 전공에서는 학습 효과, 실무 적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송홍준(영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교수는 "소단위 전공이 강의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환류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많은 대학의 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총체적인 소단위 전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의 원인은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한 후 해당 전공의 구성을 각 대학에 위임한 점이 제기된다. 소단위 전공은 대학 내, 나아가 대학 간 학문적 융합을 촉진하는 교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

에 대해 논의가 부족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송 교수는 "전국 대학들이 소단위 전공을 도입한 반면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소단위 전공을 위한 전담 행정 부서 설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전담 부서는 소단위 전공의 기획,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학생 간 대학 내외부의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는 "소단위 전공 교육과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면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소단위 전공의 강의를 원활히 개설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기적인 홍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학은 세미나 등을 통해 교수자에게 소단위 전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에게는 홈페이지나 문자 등을 통해 전공의 존재와 효과성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연구교수는 "학과별 학년별 단톡방, 홈페이지, 이수 학생들의 경험 공유 등 각 대학의 홍보 체계를 점검하고 소단위 전공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단위 전공의 학습 내용이 학생·사회·산업의 요구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코디, 외부 산업계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질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해당 전공이 보다 심화적이고 실무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만큼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해 강의의 품질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연구교수는 "외부 전문가의 피드백, 참여자의 요구와 만족도, 성과분석 등을 관리하며 강의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 당국과 대학이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소단위 전공 운영 대학 간 운영 데이터를 공유해, 해당 전공의 운영 방식을 표준화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연구협회 등 대학의 의견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및 통합 플랫폼 운영이 제기된다. 송 교수는 "교육 당국과 대학 간 논의 창구를 마련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소단위 전공의 운영 방식을 공유한다면 소단위 전공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77개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학·교육대학, 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과 각종학교를 제외한 범주이며,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와 동일한 대학으로 간주하고 본교는 본교와 상이한 대학으로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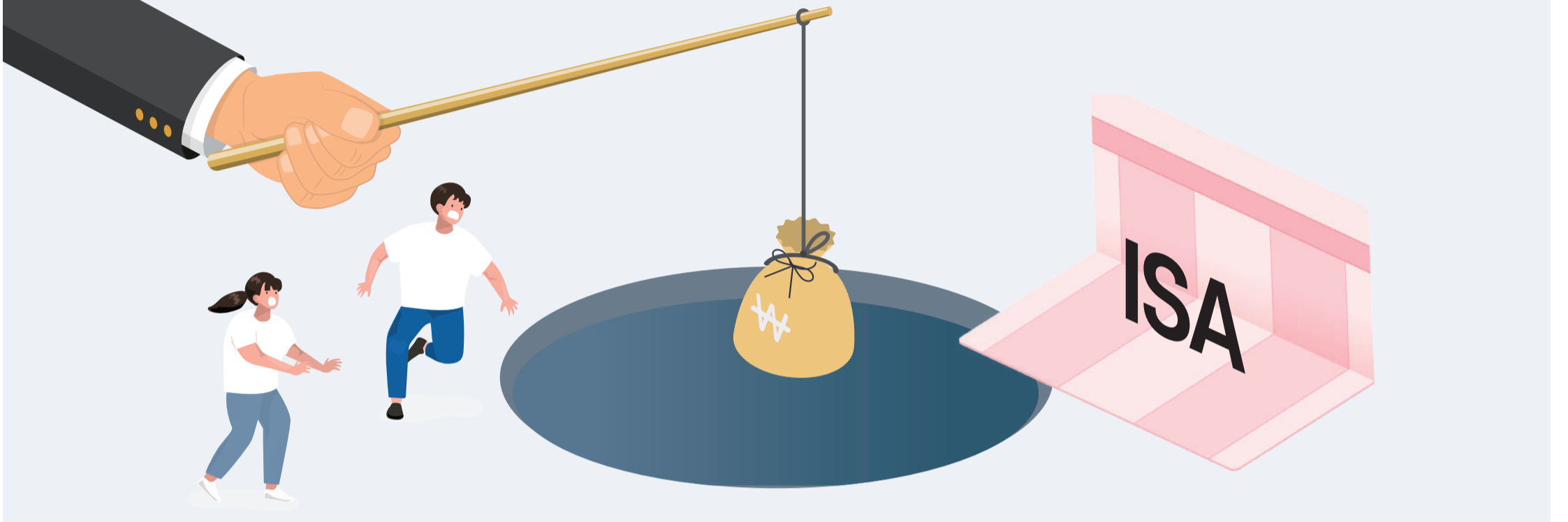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00만 명 개설. 일명 ‘만능계좌’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지난해 2월말 가입자 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ISA는 청년 자산 증대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ISA규제 완화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인한 정책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갈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청년 ISA 활용에 대한 과제를 짚어본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gmail.com

ISA, 만능계좌의 탈을 쓴 함정



규제의 뒷에 걸린 경제의 균형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품을 교환하며 형성된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서 상품을 구매해 생활을 영위하고,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상품을 창출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는 자신의 선호와 조건에 맞춰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지만, ‘시장신호’가 이들의 선택을 변화시킨다. 시장신호는 정부나 규제기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가격 변동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 후 시장신호가 제공되면 경제주체는 수요와 공급 변화를 예측한다. 이 신호를 바탕으로 가계와 기업은 각각 소비와 생산의 적정 수준을 조절하게 된다. 김형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며 시장신호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상품의 생산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신호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가계는 소득 변화나 경제 불안정에 따라 수요를 변화시킨다. 경제주체가 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급격히 줄면 상품에 대한 가격은 폭락한다. 한번 폭락한 상품의 가격은 반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상품의 가격은 폭등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게는 폭리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신호를 읽지 못해 형성될 수 있는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한다. 명확한 규제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방지하고 시장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시장신호를 파악하는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장에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후생’을 변화시킨다. 후생이란 각 경제주체가 자원 배분에서 얻는 효용을 의미하며 소득, 소비, 생산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시장 내에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가격 규제를 펼친다고 가정하자.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가격 인하로 소비자는 혜택을 보고 생산자는 이익이 감소한다. 반면 가격 하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는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내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 경우 소

비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생산자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보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규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소비자나 생산자의 이익과 손실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김 교수는 “어느 한 쪽이 정상적인 이득보다 큰 이득을 가져가는 비효율적인 상황에는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보고 있는 측을 보호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포획이론’으로 설명된다. 포획이론은 규제기관이 피규제자인 기업에 의해 상황이 역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규제기관이 정책을 통해 기업을 규제하려 해도 기업의 영향이 더욱 커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책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의 이익 보호를 벗어나게 되고 규제기관에 의해 시장신호 왜곡이 더욱 크게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규제기관이 기업의 영향을 받아 규제의 강도를 완화하면, 기업은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거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는 시장신호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 내 자원이 원활하게 배분되지 않아 경제 효율성을 저해시킨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김 교수는 “기업이 1만 원에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5천 원으로 낮추는 규제를 시행하려 했지만, 8천 원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포획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규제를 시행했다고 판단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포획이론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규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 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규제기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에게 포획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제 변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사와 은행에 대한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손에 달린 규제의 이정표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일반형, 중개형, 신탁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고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며 신탁형은 자금을 예치한 후 개인이 직접 운용한다. 해당 계좌는 가계의 금융자산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ISA 규제를 완화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ISA 가입 한도 확대와 비과세 항목 조정 등이 포함됐다. 2021년 ISA 규제 완화 당시 청년층의 중장년형 성장 정책으로 주목받았으나, 일시적인 관심에 그쳤다. 이번 ISA 규제 완화 역시 청년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자산 형성 방안으로 ISA가 떠올랐지만 계좌는 운용되지 못한 채 ‘강통계좌’로 남아있다. 청년의 가입이 증가하는 데에 비해 실질적으로 계좌가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금융투자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64%에 그쳤던 20대 가입자 수가 2024년 2월 말 16.4%로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많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14개 은행·증권사로부터 제출 받은 ISA 운영 현황에 따르면 4개 은행의 납입 금액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10만 원 미만 계좌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A가 청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계좌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ISA는 용도 없이 예·적금된 자금을 투자성 자금으로 전환하는 성격을 갖는다. 가입자가 위험 자산으로 유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 경험 부족은 청년은 더욱 위험성이 더해진다. 천창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계좌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청년에게 특화된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년이 ISA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용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SA는 금융회사가 투자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은행별 수수료 및 보수 체계가 상이해 청년이 혼란을 겪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이 상이한 점 등이 청년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ISA가 운용되지 않고 강통계좌로 남는 문제는 금융사의 금융상품 양산 과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4월, 주요 은행 및 증권사가 일제히 중개형 ISA 관

련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에게 현금성 쿠폰을 지원하거나 수수료 우대 혜택을 부여하며 유치를 유도한 바 있다. 김 교수는 “ISA 등 금융사들이 가입 유치를 위해 단기적인 유인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 속에서 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해당 계좌에 대한 위험성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IS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거론된다. 불안정한 경제적 여력을 고려한 청년의 안정성 중·장기성 상품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교수는 “청년의 경제적 불안정을 반영한 자산 형성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부과 등 오용 문제는 청년들의 금융 교육 부족에서 비롯된다. ISA는 기존의 투자 방법이나 예적금 계좌와 차이가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이 수수료 체계와 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은행 및 금융사는 투자 등을 중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명확한 ISA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금융사가 ISA를 통해 효과적으로 청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금융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금융사들이 가입 유치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금융 당국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맞춤형 ISA 상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등으로 구분되며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혜택 등이 추가로 주어진다. 청년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이뤄지는 경향이 크므로 청년 맞춤 상품을 도입하면 효과적인 자산 형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견해다. 박준태(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형 ISA 도입은 새로운 청년 자산 정책으로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ISA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대학 내 세미나 등을 통해 ISA 계좌 개설부터 운용, 세금 혜택까지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천 교수는 “ISA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므로 청년이 계좌를 현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환경을 위한 연대,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린다

제로웨이스트 숍 알맹상점 고금숙 공동대표

61.405t. 전국 생활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이다. 비닐에 싸인 간식을 집어 들고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매일같이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 변화를 보여주며 가능성을 증명하는 이가 있다. 국내 첫 제로웨이스트 숍 '알맹상점'의 고금숙(46) 공동대표다. '제로웨이스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알맹상점은 생산과 유통 구조에서 포장 없는 판매 방식을 도입해 다회용 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친환경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어택(Attack)' 캠페인을 주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활동이 함께하는 즐거움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비단

환경 활동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개인이 품은 열망을 타인과 공유하고 즐기며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막연한 의무감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알맹상점으로 걸음을 옮겼다.

쓰레기를 덕질하다

고 대표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출생한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에 이 끌려 상경했다. 대학 생활 중 우연히 가입한 교지편집부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흥미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관심사를 발견했다.

"대학에서 누군가 버리고 간 교지를 보게 됐어요. 평소에 보지 않던 교지를 무심코 보고 교지편집부에 가입했어요. 교지를 발견하며

부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렇게 교지에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그 과정에서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한 제 관심도 깊어졌어요. 관심사를 제 일상에 녹여내고 싶다고 생각하다 보니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됐죠."

대학 시절 관심을 뒀던 주제를 따라 그는 2007년부터 10년간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에서 그는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경험을 했다. 2016년에 진행된 일회용 생리대 유해 물질 검출 실험 등이 그의 대표적인 성과다. 해당 실험을 통해 시판 생리대 성분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고, 이 결과는 2018년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의 법제화를 이끌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일회용 생리대 유해 물질 검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됐어요. 환경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물질이죠. 당시 제조사에 성분 공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제품 성분도 모른 채 사용했어요. 이를 공론화한 결과,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실제로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후 그는 자신의 생활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단체를 나왔다. 쓰레기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2018년 망원동에서 '알맹이만 찾는 자들(이하 알맹)' 모임을 결성했다. 그야말로 '쓰레기 덕질'의 시작이었다.

"망원동은 제가 20여 년간 살아 온 동네예요. 시민단체에서 여러 활동을 했지만 제가 살아가는 곳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부터 조금이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죠. 혼자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상인의 거절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였죠. 이런 고민



을 나누고 즐겁게 활동하기 위해 알맹이 모임을 결성했어요. 망원시장 다회용기와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시민들이 이를 활용해 포장할 경우 농작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제로에서 시작한 무한한 가능성

알맹이 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 대표는 알맹이 모임에서 만난 양래교, 이주은 공동대표와 함께 2020년, 국내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숍인 알맹상점을 열었다. 국내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숍이라는 명칭만큼, 제로웨이스트 산업을 처음부터 일궈야 했다. 그 과정은 그들을 어렵게 했지만, 공동대표들은 힘을 모아 상점을 꾸려 나갔다. 알맹상점은 소분 포장 안 된 상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소비자가 다회용기에 리필하는 형태로 상품을 판매한다.

"해외는 화장품과 세제를 다회용기에 리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런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제로웨이스트 생태계 자체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존 유통 구조는 개별 포장에 생활필수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는 공급자도 없었고, 전례가 없던 만큼 법과 제도도 미흡했고요. 업체와 계속 조율해 가는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알맹상점이 들어서니 환경부에서도 제로웨이스트 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기 시작했어요."

"겉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상점의 슬로건은 그들이 일궈내며 쌓아온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알맹상점은 ▲다회용 사용 ▲유통 과정에서의 무포장 ▲오프라인 운영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한다.

"상점을 운영하면서 공동대표 셋이서 함께 세운 목표예요. 알맹상점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구조를 지

양해요. 다회용품을 사용하며 상품은 포장되지 않은 알맹이만 취급해요. 또한 오프라인으로만 상점을 운영해요. 알맹상점이 단순한 물건 판매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를 가져와 분류하고 함께 순환을 고민하는 '쓰레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알맹상점은 상품 판매를 넘어서 기업과 정부에도 환경적 책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어택이다. 어택은 소비자가 기업을 향해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이다. 알맹상점은 2021년 '화장품 용기 어택'을 시작으로 '브리타 필터 어택', '이중 병뚜껑 어택' 등을 진행하며 생산자와 정부의 책임을 환기해 왔다.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소비자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문제예요. 기업이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화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알맹상점은 화장품 용기 어택을 통해 이를 촉구했어요. 국내 상위 4개 화장품 기업의 화장품 용기 대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했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도 없었어요. 8천여 개의 화장품 용기를 모아 재활용 가능 여부를 모니터링해 개선을 요구한 결과, 2021년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되고 기업이 다 쓴 용기를 세척해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함께하는 순간, 변화의 싹을 틔우다

알맹상점은 앞으로도 참여를 이끄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제로웨이스트 숍들의 네트워크인 '도모도모'를 적극 운영하는 데 주력한다. 알맹상점을 필두로 국내에는 현재 200여 개의 제로웨이스트 숍이 자리 잡았다. 해당 모임을 통해 이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제안을 비롯한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제로웨이스트 실천은 개인의 노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제로웨이스트 숍들의 네트워크인 도모도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숍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많은 사람들이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해요."

그는 자신의 활동 전반이 협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혼자라면 부담이 크고 쉽게 지칠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많은 시각을 얻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환경 활동이 크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면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함께했을 때는 재미를 느끼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의견을 공유하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죠. 알맹 모임에서 알맹상점으로, 또 어택으로 활동을 키워나간 것처럼요."

그는 청년에게 즐겁게 연대할 것을 전한다. 큰 목표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아리나 모임 등을 통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시도해보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개인의 성장이 곧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도 역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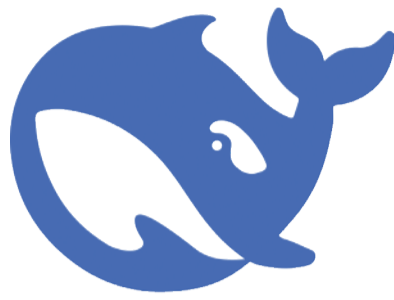
"내가 불편함을 느낀 지점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저는 환경 문제를 선택했지만, 일상의 작은 불편이든 관심 있는 어떤 주제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함께 해결해 보려는 시도예요. 계속 생각하고 해결책을 고민해 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 작은 씨앗을 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선명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점들이 모이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고금숙 대표가 알맹이 모임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새 채팅



속도와 효율의 혁명, AI의 미래를 바꾸다

안녕하세요, 저는 DeepSeek입니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적수가 없을 것 같은 ChatGPT(이하 챗GPT)의 대항마가 떠올랐다. 바로 'DeepSeek(이하 딥시크)'다. 딥시크의 등장은 반도체 설계·제조 기업인 엔비디아와 인공지능(이하 AI) 연구개발 기업인 'OpenAI' 등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준혁(대구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는 "딥시크의 기술을 적용하면 AI 모델의 훈련에 드는 비용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며 "이는 엔비디아의 초고가 장지에 대한 수요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딥시크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 AI'라는 특징 때문이다. 학습 과정에서 타 AI 모델보다 적은 비용이 소요됐다는 뜻이다. 윤석빈(서강대학교 AI·SW대학원) 특임교수는 "기존 AI 모델이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요구하는 것에 비해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챗GPT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확보했다"며 "딥시크의 등장은 AI 모델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8비트와 32비트를 넘나들다

딥시크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그래픽 처리 장치(이하 GPU)'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한다. GPU에서는 숫자의 배열로 연산이 이뤄지는데 이때 연산 체계를 컴퓨터에 소수로 표현하는 '부동소수점'이 활용된다. 부동소수점은 소수점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비트(Bit)를 통해 컴퓨터가 수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다. 비트는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로,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더 정교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이재성(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8비트에서는 '0.124'로밖에 표현할 수 없던 것이 32비트에서는 '0.123897'과 같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정교한 표현을 가능케 한다"며 "부동소수점 표현에 사용되는 비트의 숫자가 많으면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 표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기존 AI 모델이 주로 사용하던 32비트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8비트 부동소수점 방식을 활용해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모든 구간 중에서 특히나 데이터의 정확도가 중요한 구간은 32비트, 이외의 구간은 8비트 부동소수점 방식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수를 나타냈다는 의미다. 최병호(고려대학교 Human-Inspired AI Research) 교수는 "8비트 부동소수점 방식만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질이 현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딥시크는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언어별 자료를 바탕으로 32비트 부동소수점 방식과 8비트 부동소수

점 방식을 활용하는 구간을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빠른 연산 속도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밀도 하락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규화'가 사용됐다. 정규화는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해 AI 모델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사용자가 딥시크에 명령을 입력하면 딥시크는 이를 데이터로 수용한다. 이때 특정 데이터의 값이 다른 데이터의 값에 비해 유독 높거나 낮다면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값을 일정한 범위로 조정해야 한다. 어떤 데이터는 1부터 100까지의 범위를 갖고 다른 데이터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진다면 정규화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0부터 1 사이로 변환하는 것이다. 윤 특임교수는 "정규화를 통해 AI 모델은 서로 다른 규모의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에서 해석하고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속도와 문맥을 동시에, 다중 토큰 예측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기 위한 AI 모델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하 LLM)은 '토큰'이라는 단위를 사용해 언어를 이해한다. 사용자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LLM에게 요구하면 LLM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토큰 단위로 나눈 후 현재 토큰을 기준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한다. 이것이 바로 '단일 토큰 예측 방식'이다. 윤 특임교수는 "단일 토큰 예측 방식은 다음 토큰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딥시크는 단일 토큰 예측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 토큰 예측 방식'을 채택했다. 다중 토큰 예측 방식은 여러 토큰을 동시에 예측함으로써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다. 단일 토큰 예측 방식이 현재 토큰을 기준으로 다음 1개의 토큰을 생성한다면 다중 토큰 예측 방식은 현재 토큰 이후 N개의 토큰을 동시에 예측한다. 최대선(숭실대학교 AI안전성연구센터) 센터장은 "딥시크는 다중 토큰 예측 방식을 통해 연산 속도를 높이고 긴 문맥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생성된 문장의 품질과 일관성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다중 토큰 예측 방식의 과정은 먼저 사용자가 특정 질문을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용자의 질문을 입력받은 딥시크는 질문에 적합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 토큰을 예측한다. 이때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트랜스포머'가 활용된다. 트랜스포머는 각 단어 간 관계를 분석해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먹었

다. 그것은 정말 맛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트랜스포머는 '그것'이 사과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트랜스포머를 통해 이후에 나올 가장 적절한 토큰이 선정되고, 이렇게 선정된 토큰이 모여 자연스러운 문장이 생성된다. 최 센터장은 "다중 토큰 예측 방식은 전체 문맥을 고려해 연산을 수행한다"며 "트랜스포머를 활용해 동시에 여러 토큰을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보상을 통해 성장하는 AI

기존 LLM은 개발사가 사전에 정답을 알려주고 이를 기반으로 추론 능력을 얻는 방식인 '지도학습'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 사진은 개, 저 사진은 고양이라고 가르치는 방식이다. 유 교수는 "지도학습은 사람이 모델에게 수많은 정답 데이터를 제공하면 AI 모델이 외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딥시크는 사람이 선별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배우는 강화학습을 이용했다. 비록 AI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바둑을 두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먼저 대량의 과거 바둑 기보를 통해 인간 바둑 기사를 모방 학습했다. 이후 자기 자신을 상대로 수차례 바둑을 두면서 경기력을 개선시켜 나갔다. 이 과정이 바로 강화학습이다. 유 교수는 "강화학습은 AI 모델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지도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강화학습에서 시행착오를 거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진은 딥시크가 강화학습 과정에서 옳은 추론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때 '보상을 주는 방식'은 딥시크가 추론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딥시크가 활용한 보상 시스템에는 정확도 보상과 형식 보상이 있다. 정확도 보상은 AI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실제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해 보상을 주는 방법이다. 윤 특임교수는 "정확도 보상에서는 수학 문제의 정답 여부 등 문제 해결의 정확도를 점수화한다"고 논했다.

형식 보상은 AI 모델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고, 문법적인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평가해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답변이 옳지 않더라도 적절한 형식을 갖추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 센터장은 "정확도 보상은 AI가 정답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형식 보상은 AI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쉬운 출력을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AI 속 전문가

딥시크는 효율적인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Mixture of Experts', 즉 MoE(이하 전문가 조합)를 사용한다. 전문가 조합은 AI 모델을 '전문가'라 불리는 별도의 하위 네트워크로 나눠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식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여러 전문가가 분담해 처리한다는 뜻이다. 전문가 조합은 ▲데이터 입력 ▲라우팅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 ▲결과 출력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처리된다. 먼저 데이터 입력은 전문가 조합이 처리할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으로, 이미지 분석이나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라우팅 네트워크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장 적합한 전문가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지 데이터는 시각 전문가 네트워크, 텍스트 데이터는 언어 전문가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것이 일례다. 이때 선택되지 않은 전문가 네트워크는 데이터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 연산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윤 특임교수는 "라우팅 네트워크는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최적화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네트워크에는 여러 개의 전문가가 존재하며, 이전 단계에서 라우팅 네트워크를 통해 선택된 전문가가 활성화돼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여러 전문가가 출력값을 조합해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번역 모델에서는 여러 전문가가 번역한 결과를 합쳐 최상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딥시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AI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윤 특임교수는 "딥시크는 AI의 효율적 활용을 이끄는 중요한 기술을 제공했다"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딥시크는 보안 문제라는 최대의 결점을 지니고 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일부 기관에서 딥시크 사용 제한이 걸리는 등 대부분의 국가가 딥시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센터장은 "딥시크는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뤘지만 기술적 성과가 반드시 안정적인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토큰 : 어휘 항목이 의미상으로 구분되는 최소 분류 단위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DeepSeek에 메시지 보내기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장학금이 본래 기능을 다할 그날까지

한성인재장학금 개편 소식으로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시끄러웠다. 주요 쟁점은 '소득분위'였다.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소득분위를 최우선으로 평가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적'을 토대로 지급하는 장학금인데 소득분위를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급기야는 '장학금이 뺏길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도 존재했다.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은 비단 본교만의 일은 아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미 성적 기반 장학금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 2016년 고려대학교를 필두로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의 성적 기반 장학금을 폐지했다. 성적을 기반으로 한 장학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럼에도 성적 기반 장학금을 폐지하고 대신 학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제하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성적 기반 장학금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장학금이 우수한 성적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학금의 사전적 정의는 '주로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주는 돈'이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다분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이 커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장학금이다. 많은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가 동일하게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성별, 종교 신념과 더불어 경제적 지위까지 포함한다. 성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과연 부당한 일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캠퍼스 내 주변을 둘러보자. 가파른 물가 상승률로 경제적 어려움에 사로잡혀 공부보다 당장 눈앞의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학습을 목적으로 모인 집단에서 학습이 아닌 금전적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상황이 우스울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장학금 제도 개편은 본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걸음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 단편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아닌, 성적이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개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장학금은 교육의 기회 확대와 교육의 평등을 위해 기능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편집국장



'필수' 인력 부족한 '필수' 노동자

서울시 중구청의 공무원근로자(이하 공무원) 적정인원 확보를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 13일 중구청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지치단체공무원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중구청 측이 공무직을 신규채용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공무직의 적정인원 미확보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 더 이상 공무직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끔 적정인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기사수첩

존재 의미 상실한 인권의 수호자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진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인물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인권위가 정말로 인권을 위한 기구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 수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차별을 조정하고 있다. 2022년 발생한 '금융회사 당직근무 편성 시 남성 차별'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의 야간 당직 근무는 남성 전담이었고, 여성은 제외됐다. 이에 불평등을 느낀

남성 직원이 성차별을 근거로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가 변질된 원인은 '권고'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확인해 그 시정을 위한 다양한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독립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고'보다 '조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조정은 당사자들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조정위원회가 마련돼 있지만 실적은 참담하다.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조정성립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현재 조정 관련 규칙은 조정의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만 기술돼 있어 당사자 중심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참여 지원이 부족하다. 조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 보니 이용자의 이해도가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인권위로 거듭나기 위해 독립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길 바란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낙산만평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 낙산에 올라

새로운 곳에 갈 때,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모두 불안을 느낀다. 불안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준비되지 않았기에 생기는 불안함은 게으름에서 시작되며, 겪어봤던 사소한 불행 하나가 겪어보지 못한 것까지 불안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낯선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지레 겁을 먹는다. 지나친 불안은 행동을 멈추게 한다.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무기력함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안은 과연 나쁜 것일까? 불안은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우리는 제출기한을 맞추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을 대하는 방법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다.

불안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항상 불안함과 함께 살아왔던 내가 터득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첫째, 불안의 원인을 파악한다. 내가 왜 불안함을 느끼는지 타임라인을 짚어보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가까운 목표를 설정한다. 너무 먼 미래의 일을 계획하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갖게 되고 동떨어진 현실과의 괴리감에 불안이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움직인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과

도한 불안은 조금 수그러든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소위 말하는 '새벽 감성'은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규칙적인 생활은 확실히 마음의 안정을 준다.

다섯째, 불안을 표현한다.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터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다.

불안은 우리 삶의 일부이기에, 불안을 인정하고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불안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쩌면 그 불안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일지도 모른다.

정재윤(산공 3)

■ 의화정

국제표준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열쇠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유는 국제표준 덕분이다. 국제표준화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과 서비스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Wi-Fi)는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SA)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을 따른다. 만약 기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와이파이를 개발했다면, 기기 간 연결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USB-C 충전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애플도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를 버리고 USB-C를 채택했다. 이는 국제표준이 시장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

요 국가들이 자국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개인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성대학교는 2024년 5월 국내 대학 최초로 IEEE SA 3079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표준화 추진을 본격화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을 목표로 ISO/IEC, ITU-T, IEEE SA 등 주요 표준기구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표준화는 특정 기업이나 연구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들도 직접 참여할 기회가 있으며, 국제표준 올림픽(ICC), 국제표준화 인턴십 프로그램, 표준특허(IP-R&D) 연계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제

표준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국제표준화는 단순한 기술 규격 정립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도구다. 국제표준 없이 제품을 출시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우며, 글로벌 표준을 따른 경쟁 제품에 밀려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제표준을 준수하면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더 큰 기회가 열린다.

미래의 기술 전문가, 기업가, 연구자로서 성장하려면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그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표준으로 만들고 선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한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자가 시장을 장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신현덕(ICT디자인학부) 교수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의 미래를 그릴 첫 문장,
도전과 열정으로 채워나가라



한성대신문사
제58기
수습기자
모집

한성대신문